

특별기고



정기연
前 영암신북초등학교교장

한자교육과 서예 교육

민족을 만들려면, 한자 교육과 한글 교육...

초등학교에서의 한자 교육은 2009년에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10년부터 해마다 교육부는 지침에...

정지권과 교육부는 2018년에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한자를 ()안에 같이 써 편지를 하겠다고 했으나 시행하지 않았다. 한자는 우리 언어문화의 뿌리이며 한자 교육 없는 언어문화는 뿌리 없는 꽃병의 꽃과 같다.

중국·일본을 비롯한 한자문화권 국가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의도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문교정책과 정치권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한자 문명국을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어 한심스럽다.

공교육인 학교 교육은 경험의 총체인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한 한글이다. 조상들은 우리 민족의 조상이 만든 한자로 한자 문화를 전수했으나 후손들이 한자를 배우지 않아 한자 문맹(文盲)이 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정치권과 공교육에서는 우리의 뿌리를 찾고 문맹을 퇴치해 문화

태를 종합한 기저 자료에 의해 학교 교육계획을 세우고 교육과정을 교과 활동과 창의체험 활동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여기에서 학부모가 의지(意志) 조사에서 한자 교육을 반대하는지 알 수 없으며 학교 교육과정에 빠진 한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경험할 수 없다, 초등학교는 입문기에 문자 교육으로 국어 시간에 한글을 가르치고 있으며, 3학년 이상은 영문자와 영어는 가르치고 있으나 한자 교육은 하지 않으며, 교육부가 한자를 병기(併記)해서 가르친다고 했으나 2018년에 시행하지 않았고 2019년에는 한자 교육은 거론조차 안 하고 있다.

한편 미술 시간에 붓으로 글씨를 쓰던 서예 교육도 사라졌다. 하지만 2018년 11월에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서예 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19년 6월부터 시행되며, 서예 예술이 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예진흥법의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서예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고를 지원하고, 국제 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미술 시간에 서예 지도를 창의적으로 해야 한다. 광주시 교육청은 전일 교육감 때 한자 교재를 만들어 배부하고 학생들이 간접 경험으로 한자 공부를 하게 했으나 장휘국 교육감 부임 후 한자 교

재는 학교에서 살아졌으며, 자율적으로 한자 교육을 전통적으로 하던 학교도 특별 예산 지원을 받는 혁신학교가 되면 한자 교육은 살아진다.

그러므로 교육이 미래 지향적이라면 학교장 재량시간에 전교생이 의도적으로 단계적인 한자 교육을 해서 초등학교 과정에서 익혀야 할 한자 공부를 하게 해야 한다.

허비 가스터의 발달 과업에 의하면 공부는 경험해야 하는 발달과업 기간에 해야 하며, 어렸을 때 해야 했던 한자 공부를 성년 때 하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공부는 가르치는 공부와 하게 하는 공부가 있다.

가르치는 공부는 계속 교사지도가 있어야 하지만, 하게 하는 한자 공부는 방법을 알면 학생이 자율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자 교육을 한자를 잘 모른 교사가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지도로 공부하게 해야 한다. 시중에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교재와 자료가 많이 나와 있다.

교육을 맡은 가정과 학교는 한자 공부를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여건 조성을 해주어야 한다. 한자 공부를 하면서 붓 펜으로 한자를 쓰게 하면 자연적으로 서예의 기초 기법을 알게 되고 필력이 생겨 글씨를 잘 쓰게 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한자와 서예를 포함하고 계획을 세워 창의적으로 학년 초부터 시행해야 한다.

社說

희귀 식물 보고 무등산 보호대책 서둘러야

국립공원 무등산이 희귀 식물의 보고임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절멸되거나 절멸위기에 놓인 식물의 존재가 속속 확인되고 있어 생태계 보고로서의 무등산 가치가 확인된 것이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조사한 바로는 무등산에 서식하는 식물종은 총 1천426종으로 이중 신규로 식물 21종의 서식을 확인했다. 전문가가 함께한 이번 조사에서는 광릉 용수염·애기 하늘 지기·쇠방 동사나·골아재비·간 두잎 갈퀴·좁민 하늘지기·발톱 외풀·병아리 방동사나·털쇠 무릎·섬모시 풀 등 이름도 생소한 식물종들이었다.

이번에 발견된 희귀 식물들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종들로 대단히 보호 가치가 높은 것들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절멸된 것으로 알려진 '무등풀'과 같은 속인 '너도고랭이'가 발견돼 '무등풀'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속 조사를 벌인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렸다.

무등산은 무등산에만 있는 특산종이다. 오늘날 전 세계는 식물 자원을 국가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들은 식물을 자원화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고 식물을 통한 신약개발과 유전자 개발로 큰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

이런 자원화 시대에 우리의 소중한 식물 자원이 외국으로 넘어간 사례는 비일 비재 하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에 무등산에서 발견된 우리

희귀 식물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보존 가치가 높은 국가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식물 한 종에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 하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번 무등산에서 발견된 희귀 식물의 자원화도 체계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무등산은 좁은 영역에서 다양한 희귀식물이 분포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산이다.

그런 만큼 보호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무등산은 계절에 관계 없이 수많은 탐방객이 드나들어 식물을 마구 잡이로 밟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희귀 식물만을 찾는 사진동호회나 마구잡이로 사진을 찍다보면 일대가 황폐화 되기 십상이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과 함께 성숙한 시민 의식도 요구된다.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취사나 야생 식물을 함부로 채취하는 것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등산은 광주 시민은 물론 국가적으로 내세울만한 명산임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주상절리대 에다 희귀 식물의 보고로서 국제적 위상도 날로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로 무등산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 광주 시민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독자기고

봄철 화재 예방대책 이렇게 추진합시다

최근 5년간 4계절 화재 발생률을 보면 봄(29.3%), 겨울(27.9%), 여름(21.9%), 가을(20.9%)로 봄철에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봄철 3~5월중 3월에 11.7%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지속됨에 따라 건조기후, 야외활동 증가 등 소방에서는 봄철 화재 특성 및 원인을 분석해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의 기후와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생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봄철 화재 특성 및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기후적 요인으로 따뜻한 기온 + 강한 바람 + 낮은 습도(건조)의 최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야외활동 증가이다. 따뜻한 기

온으로 인해 캠핑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며, 산학기, 봄철 여행주간으로 관광 및 수학여행 증가이다.

셋째, 다수의 불특정 국민이 운집해 참여하는 단체행사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소방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데 소방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주위 안전을 살피는 자세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해야겠다.

중점 추진과제 첫번째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피해 저감대책 추진이다.

봄철화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건수가 63.1%를 차지하고 있어 예방홍보를 강화해 부주의 화재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단체 등을

방문 교육과 우리집 1일 화재안전점검표를 활용하자 화재안전점검 운동 전개를 추진 중에 있다.

둘째는 화재 시 '피난우선' 홍보패러다임 전환이다. 지난해 2월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시 다수 거주불편환자가 있음에도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난우선 안전의식을 평소 교육하고 훈련해왔던 결과이다. 특히 노유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다중이용업소, 찜질방 등에 문 닫고-피난우선-119신고 라는 교육을 적극 실시 중에 있다.

셋째는 사회취약계층 주거시설 인명피해 저감이다. 주거용 비닐하우스나 주거용 컨테이너가 아직도 많이 있다.

이에 중점과제로 초기대응을 위한 기초 소방시설 등 보급 설치 확대와 취약계층 화재안전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의용소방대, 아·동장을 활용, 화재안전확인 방문

실시이다. 넷째, 건축 공사장 화재안전관리이다. 대형공사장에 용접, 용단작업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작업시에는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장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일이다.

또한 용접·용단작업시 반드시 화재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사업주는 안전교육 사전 실시하는 실천운동이다. 국민 모두가 내 가정, 내 직장에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대형재난을 사전 예방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며 재난 발생은 국경과도 관계가 있으니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안전한 대한민국임을 알리는 등 모두가 안전의식을 생활화해야겠다.

국민 모두가 내 가정, 내 직장에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대형재난을 사전 예방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며 재난 발생은 국경과도 관계가 있으니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안전한 대한민국임을 알리는 등 모두가 안전의식을 생활화해야겠다.

/박광재 보성소방서 소방민원팀장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124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석빌딩 5층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인 전광선 광고 (062)227-0083 구독료 월 10,000원
시장·편집인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 기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 제갈대중 서울사무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1-7 에이스테크노8차 140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일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만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Jeonnam Daily News with the headline '세상을 읽는 바른신문' and a table of regional branch offices.

세상을 읽는 바른신문

전남도민일보 지역기자안내

Table with 8 columns: 지역 (Region), 직급 (Position), 성명 (Name), 연락처 (Contact), 지역 (Region), 직급 (Position), 성명 (Name), 연락처 (Contact). Lists various regional branches and their staff.